

彗星歌의 考察

尹 榮 玉

.....<內 容>.....

I. 序

III. 彗星歌의 檢討

II. 附帶歌話의 理解

IV. 結

I. 序

《彗星歌》는 現在 作品이 傳하는 鄉歌로서는 最古의 것으로 「三國遺事」卷五 感通 第七 ‘融天師 彗星歌 眞平王代’條에 실려 傳하고 있다. 現存 鄉歌 대다수가 佛教의 影響下에서 製作된 것과는 달리, 本歌는 上俗의인 星祭와 關係된 것으로 一種의 祭祝과 같은 노래인 것 같다.

그러나 鄉歌의 다른 作品들과 마찬가지로 이 作品에 대한 諸家들의 見解는 匾匾하다. 이를 大別해 보면 「營壇作啓」하여 부른 呪詞로 보는 見解¹⁾²⁾³⁾⁴⁾⁵⁾와 三花郎의 功德을 稱頌한 노래로 보는 見解⁶⁾⁷⁾로 나누어 진다.

作品 自體가 純粹한 詩歌로서가 아닌 星祭儀式과 結付된 것이라고 한다면, 그에 附帶된 歌話를 歷史·社會의 文脈上에 놓고 얼마나 正確히 理解하느냐에 따라 本歌에의 接近度도 달라질 것으로 생각된다. 그래

- 1) 梁柱東, 朝鮮古歌研究, 博文書館, 1942.
- 2) 金東旭, ‘新羅鄉歌의 佛教文學의 考察,’ (白性郁博士頌壽記念論集), 1959.
- 3) 金東旭, 國文學概說, 民衆書館, 1961
- 4) 崔聖第, ‘彗星歌研究’(无涯草甲記念論叢), 1963.
- 5) 金烈圭, ‘鄉歌의 文學的研究一斑’(鄉歌의 語文學的研究), 1972.
- 6) 李在銑, ‘鄉歌의 語法과 修辭’(鄉歌의 語文學的研究), 1972.
- 7) 金善琪, ‘향가의 새로운 풀이’(現代文學 145號), 1967. 1.
- 7) 崔 肇, ‘新羅歌謡[鄉歌]와 그 作者研究’(人文科學 27, 28 合併號) 1972.

서 筆者는 附帶歌話의 綿密의 檢討하여, 本歌의 分析·理解에 接近해 보려 한다.

II. 附帶歌話의 理解

1. 花郎

‘三花之徒欲遊楓岳’으로 이 說話의 動的要素는 ‘세 화랑의 무리’들이다. 花郎에 대해 살펴본다.

眞興王三十七年春 始奉源花，初君臣病無以知人，欲使類聚群遊，以觀其行義，然後舉而用之。……其後更取美貌男子，粧飾之，名花郎以奉之，徒衆雲集，或相磨以道義，或相悅以歌舞，遊娛山水，無遠不至。因此知其人邪正，擇其善者薦之於朝，故金大問花郎世記曰，賢佐忠臣從此而秀，良將勇卒由是而生。崔致遠鬱郎碑序曰，國有玄妙之道曰風流，設教之源備詳仙史，實乃包含三教，接化群生，且如入則孝於家，出則忠於國，魯司寇之旨也。處無爲之事，行不言之教，周柱史之宗也，諸惡莫作，諸善奉行，竺乾太子之化也。唐令狐澄新羅國記曰，擇貴人子弟之美者，傅粉粧飾之，名曰 花郎，國人皆尊事之也。⁸⁾

이 記錄을 通해 花郎徒는 平和時는 賢佐忠臣，戰爭時는 良將勇卒을輩出하는 修練團體로 戰爭의 勃發했을 때는 皆兵이 뛴 음도 짐작할 수 있다. ‘三花之徒欲遊楓岳’은 ‘遊娛山水無遠不至’에 該當하는 것으로 平和時 花郎들의 修練課程을 말해 준다 하겠다.

2. 祭 祀。

◦按新羅宗廟之制。

第二代南解王三年春 始立始祖赫居世廟，四時祭之，以親妹阿老主祭。

第二十二代智證王 於始祖誕降之地奈乙 創立神宮，以享之。

第三十六代惠恭王 始定五廟。

第三十七代宣德王 立社稷壇。

◦又見於祀典，皆境內山川而不及天地者 蓋以王制曰，天子七廟，諸侯五廟，二昭三穆與太祖之廟而五。又曰，天子祭天地 天下名山大川，諸侯祭祀稷名山大川之在其者。……立春後亥日 明活城南熊殺谷祭先農，立夏後亥日 新城北門祭中農，立秋後亥日 蒜園祭後農，立春後丑日 犬首谷門祭風伯，立夏後申日 卓渚

8) 「三國史記」卷第四 真興王。

祭兩師 立秋後辰日 本彼遊村祭靈星

◦ 星三山五岳已下名山大川 分爲大小中祀.

大祀三山.

中祀五岳.

小祀. 霜岳(高城郡), 雪岳(遼城郡), 花岳(斤平郡), 鉗岳(七重城), 負兒岳(北漢山州), 月奈岳(月奈郡).

◦ 部庭祭, 梁部四川上祭, 一犬首, 二文熟林, 三青淵, 四楓樹 文熟林行日月祭,
靈廟南行五星祭, 惠樹行雨祭.⁹⁾....

◦ 後漢書云 高句麗好祀鬼神社稷靈星.

梁書云 高句麗 於所居之左 立大屋祭鬼神. 冬祠靈星社稷.

唐書云 高麗句俗 多淫祠, 祀靈星及日.¹⁰⁾

◦ 百濟其王 以四仲之月 祭天及五帝之神. (後周書)

◦ 高句麗 祀社稷靈星 以十月祭天 大會名曰 東盟.(後漢書)

◦ 漢常月十月祭天. (後漢書)

◦ 夫餘以蠶月(按魏志殷正月) 祭天. (同上)

◦ 夫餘有軍事亦祭天 殺牛觀蹄 以占吉凶 蹄解者爲凶 合者爲吉. (三國志)¹¹⁾

「祭」는 곤『商書』에 “祭之言察也. 察者至也. 言人事至於神也”라 설명되어 있으며, 「祀」는 「祭」와 같은 뜻으로, 「祭祀」란 “신령에게 음식을 바치어 정성을 표하는 예절”로만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고, 人間의 일을 神에게 일러 바쳐 그 神의 뜻을 움직여 人間의 바라는 바를 성취시키는데 그 意味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祭祀에는 반드시 神에게 告하는 人間의 말이 있게 마련이다. 그것은 대개 “祝”的 形式을 취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文體明辯』에서도 “祝文饗神之辭”로 풀이하고 있다.

위의 引文에서 보는 바와 같이 人間은 自己의 所願을 成就시키기 위해 높개는 하늘에서부터 낮개는 四海, 四瀆에 이르기까지 그것을 主宰하는 神이 있다고 생각하고 祭祀를 치렀던 것이다. 高麗成宗은 群臣에게 指揮하여 社稷壇을 만들게 하고는 下教하여, “社土地之主也. 地廣不可盡敬 故封土爲社報功也. 穀五穀之長也. 穀多不可偏祭 故立稷神以祭之.”¹²⁾라고 했다. 土地와 그 위에서生成되는 植物은 우리 人間의 生存에 必須不可缺少의 것이기에 그것을主宰하는 神을 祭해야 한다는 것이다.

9)『三國史記』卷第三十二 雜志第一 祭祀.

10) 上同.

11)『海東經史』禮志.

12)『高麗史』,『大東韻玉』卷二十.

아래한 「祭祀」는 三國以前의 部族國家들의 「祭天」으로부터 始作되었음을 記錄들을 말해 주고 있다. 天은 宇宙를 主宰하여 生과死, 善과惡을 다스리고 있는 頭으로 觀念되었고, 國家가 王을 主로 組織된 것처럼 하늘에도 天神을 主로 人間國家와 같은 組織을 갖고 있으며, 人·神(天神)의 優劣은 있으나 그 組織間에는 對應關係가 成立되는 것으로도 觀念되었다 것이다. 그래서 日, 月, 星辰들에게는 位序가 있고 그들의 달은 事職能이 賦與된 것이다. 對應關係를 생자했기에 對應되는 天體의 异常을 人間世上의 어떤 變化의兆朕으로 보고 항상 天體의 運行을 觀察했으며, 그兆朕의 吉凶을 占치고, 그것이 凶兆일 때는 祈禳의 儀式을 빼풀었던 것이다.

◦自伏犧 仰觀俯察, 黃帝迎日推策, 廙歷日月以授人時, 舜察王幾衡以齊七政, 而觀天之道備矣. 易曰, 天垂象見吉凶, 望人象之, 故孔子因參史作春秋, 於日食星變悉存而不削, 所以崇之也, 高麗四百七十五年間 日食一百三十二月五星凌犯及諸星變亦多 今採其見於史者 作天文志¹³⁾

◦第八阿達羅王卽位四年丁酉 東海濱有延烏郎細烏女夫婦而居, 一日延烏歸海採藻忽有一歲(一云一魚)負歸日本, 國人見之曰, 此非常人也, 乃立爲王(按日本帝記前後無新羅人爲王者此乃邊邑小王而非真王也) 細烏班夫不來歸尋之, 見夫脫鞋亦上其巖, 巖亦負歸如前, 其國人驚訝, 奏獻於王, 夫婦相會, 立爲貴妃, 是時新羅日月無光, 日者奏云, 日月之精降在我國, 今去日本, 故致斯怪, 王遣使求二人, 延烏曰, 我到北國天使然也, 今何歸乎, 謂然朕之妃有所縕細納以此祭天可矣, 仍賜其綺, 使人來奏, 依其言而祭之, 然後日月如舊, 藏其綺於衛庫爲國寶, 名其庫爲貴妃庫, 祭天所名迎日縣又都新野.¹⁴⁾

◦景德王十九年庚子四月朔 二日並現, 漢旬不滅, 日官奏, 請緣俗 故華功德 則可禳 於是瀝酒於朔元殿, 萬幸青陽樓 望緣俗, 時有月明師 行于阡陌(寺)之南路, 王使召之 命開壇作啓, 史奏云, 臣僧但屬於國仙之徒, 只解鄉歌, 不葉聲梵, 王曰, 既卜緣俗, 雖用鄉歌可也, 明乃作兜率歌賦之……卽而日惟卽滅.¹⁵⁾

의의 記錄에서 天象의 變化는 아주 重要한 意味를 가지며, 그래서 例常王의 側近에는 日官이 따고, 그들은 天氣의 變化를 살피고 報告하고, 그兆朕을 解釋·豫言하며 處方했던 것이다. 그러니 定期的인 祭天儀式 외에도 天氣의 异常이 있을 때 祈禳의 祭儀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3)「高麗史」志卷第一, 天文一.

14)「三國遺事」卷第一, 紀異第二, 延烏郎細烏女,

15)「三國遺事」卷第五, 感通第七, 月明師兜率歌.

延烏郎 細烏女의 說話는 日蝕祭의 痕跡을 지니고 있으며 兩夫妻가 日本에 가 王·妃가 되었다는 것으로 日·月은 王·妃에 對應關係로 觀念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兜率歌 歌話의 ‘二日並現’도 王에게 重大한 意味를 갖기에 ‘營壇作啓’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3. 彗星, 心大星

• 彗星—〔通雅, 釋天〕彗星爲橈槍, 〔注〕亦謂之孛 言其形孛孛似掃彗.

〔公羊, 文, 十四〕孛者何 彗星也.

〔管子, 四時〕彗星見 則失和之 國惡之.

〔漢書, 文帝紀〕有長星出于東方. 〔注〕文穎曰, 孛·彗·長三星 其形象小異, 孛星光短其光四出, 蓬蓬孛孛也. 彗星光芒長, 參參如掃箒, 長星光芒有一, 直指或竟天 或十丈 或三丈二丈 無常也.

〔晉書, 天文志〕彗星所謂掃星.

• 心宿—〔詩, 唐風, 綢繆, 三星在天, 大全〕安成劉氏曰, 心宿之象 三星鼎立 故因謂之三星. 凡三星者非正心之宿 而知此詩爲心宿者, 盖春秋之辰月末日在畢昏時 日淪地之西位 而心宿始見於地之東方. 此詩男女既過仲春之月而得成婚 故適見心宿也.

〔左氏, 襄, 九〕心爲大火.

〔丹元子, 步天歌〕心三星 中央色最深 下有積卒共十二.

〔星經〕心三星 中天王 前爲太子 後爲庶子 火星也. 一名大火, 二名大辰, 三名鵠火.

‘彗星’은 그 모양이 孛孛하고 光芒이 길어 參參해 마치 掃彗(箒)같아 ‘掃星’이라고도 하며, ‘橈槍’이라고도 한다. 彗星이 나타나면 ‘失和之’하고 國惡之’하는 凶兆로 받아 들여진다.

‘心大星’이란 心宿의 象이 三星鼎立으로 나타나는게 그 가운데 ‘大火’로 나타나는 中央의 것으로 색깔이 가장 짙고, 이를 ‘大火’라 하기도 한다. 이는 바로 中央에 있어 ‘天王’이라고도 한다.

여기서 우리는 ‘心大星’과 ‘彗星’과의 關係를 짐작할 수 있다.

• 彗孛飛流 天之災也, 鼠狗魑魅 物之妖也.

• 高句麗末 彗星見於畢昴之間. 唐許敬宗曰, 彗見東北, 此高句麗將亡之兆也¹⁶⁾ (句史)

彗星이 나타나는 끽에는 天災가 있으며, 이 끽에는 國家가 亡할 그런

16) 東客附災書.

17) 大東觀玉十一.

大凶이豫見되는 것이다. 蕙星은 妖星으로 이것이 나타나는 곳에는 必是兵革이 있기 마련이며, 戰爭中 그陣營附近에 流星이 떨어지면 敗하게 된다고 믿었다.

◦漢武帝元封中, 星孛于河戌, 占曰, 南戌爲越門, 北戌爲胡門. 其後漢兵擊拔朝鮮以爲機浪玄菟郡. 朝鮮在海中, 越之象也. 居北方 胡之城也(〔史記〕朝鮮之拔星出于河戌)¹⁸⁾

◦隨煬帝大業三年三月辛亥, 長星見西方竟天, 又干角亢頻掃太微帝座, 干犯列宿經歲乃滅. 占曰, 去穢希新, 天所以去無道建有德. 見久者災深, 星大者事大, 行遲者期遠. 兵大起國大亂. 其後討高麗 兵戎歲駕 略無寧息(隨書)¹⁹⁾.

◦唐太宗貞觀十八年五月 太白辰星合於東井. 占曰, 有兵謀. 明年六月丙辰, 太宗征高麗次安市城.

十九年七月 高麗壽蘇延壽惠貞來援安市. 太宗將攻之. 是夜流星墮延壽營. 明日延壽等率衆降.²⁰⁾(並新唐書)

◦南解王十一年 倭入來攻金城甚急. 夜流星墮於敵營 倭人懼乃退.

◦樂浪人來攻金城, 夜有流星墮於營, 賦懼而退.

◦太宗王八年 高句麗人謂新羅銳兵皆在百濟, 內虛可擣. 水陸並進, 攻北漢山城, 凡二十餘日. 精盡力疲, 城主冬佗川至誠告天, 忽有大星落於賊營, 賦等驚而退.²¹⁾(羅史)

◦金陽 自清海鎮奉祐徵, 將討金明進次南原休兵. 蕙孛見西方芒角指東. 衆賀曰, 此除舊布新, 報冤雪耻之徵也. 競誅金明, 立祐徵.²²⁾(羅皮)

日·月이 宮中과 關係되는 吉凶을豫報해 주는 것이라면, 蕙, 孛, 長星이나 流星은 兵革과 關係되는 吉凶을豫報해 주는 것으로 觀念되어, 이 天氣의 異常은 人間에게 重要한 意味를 나타내었다. 그래서 天象에 關한 記錄은 『史記』의 重要內容이 되었다. 『三國史記』各王·各年的 첫 머리에 天氣에 關한 記錄부터 나오고, 『高麗史』에는 「天文志」가 別途로 添付되어 있으며, 『增補文獻備考』에는 「象緯考」가 실려 있다.

『三國遺事』의 「彗星犯心大星」의 記錄은 그런 意味에서 王家 또는 國家로서 非常 重大한 事件의豫報었던 것이다. 이는 王宮이 있는 서울을 侵入해 올 兵革이 있을 凶兆를 말해 주는 것이었다.

18) 『海東釋史』星曆志.

19) 同上.

20) 同上.

21) 『大東韻玉』卷六.

22) 上同.

史書의 記錄에 보면, ‘日食’에 關한 것과 ‘星變’에 關한 것이 大抵 同 많다.

- 始祖四年夏四月辛丑朔 日有食之.

二十四年六月晦 日有食之.

.....

南解三年十月朔 日有食之.

十三年七月晦 日有食之.

祇摩十三年九月晦 日有食之.

十六年七月朔 日有食之.

.....

- 始祖九年春三月 有星孛于王良.

十四年夏四月 有星孛于參.

五十四年春二月己酉 星孛于河鼓.

.....

脫解尼師今二十三年春二月 彗星見東方 又見北方二十日乃滅.

二十四年夏四月 京都大風 金城東門自墮 秋八月王薨.

祇摩尼師今九年春二月 大星墜月城西 聲如雷 三月京都大疫.

逸聖尼師今二十年冬十月 宮門災 彗星見東方 又見東北方

三十一年星二月王薨.²³⁾

.....

- 成宗八年九月甲午 彗星見 敕.(世家卷第三成宗)

八年九月甲午 彗星見 故, 王責已修行, 養老弱, 恤孤寒, 進用廉善, 奸邪孝子節婦, 放逐懸罰欠負, 彗不為災(卷第一天文一)

穆宗九年六月戊戌 震天戌殿鳴吻, 王憂懼責己 肆赦孝順義節並加恩賞, 加國內神祇勳號 文武三品以上加勳, 四品以下加一級, 九品以上入仕, 滿二十年者改服, 禪教僧徒大德以上加法號, 年六十以上者加職有差, 是歲彗星見(世家卷第三穆)

九年彗星見.(志卷第一天文一)

顯宗十年春正月辛酉 潛遜寧至新恩縣 去京城百里 王命收城外民戶入內清野以待 遜寧遣耶律好德賚書至通德門告以回軍 潛遣候騎三百餘至金都驛 我遣兵一百 乘夜掩殺之.(世家卷第四顯宗)

九年十二月丁巳 彗見于天市垣宿正察人市樓間指西.

十年正月戊寅 月犯心星.(志卷第一天文一)

靖宗七年八月乙未 東女眞柔遠將軍波乙達等五十人來朝 是月 彗星見東方 長三十尺許 二十餘日乃滅.

23) 『三國史記』新羅本紀.

冬十月 幸鑄京 豕星長三十尺許出東方十餘日。(世家卷第六睿宗)

七年八月 豕星見東方 長三十尺許 二十餘日乃滅。

十月 豕星長三十尺許出東方十餘日。(志卷第一天文一)

睿宗元年十一月戊子 以李璋同知樞密院事。辛卯西女真於厚大等來朝 癸巳尹瓘吳延寵閻神騎神步軍於崇仁門外 丁酉遣金義方如遼謝橫宣 戊戌參知政事致仕郭尚卒 辛丑設八關會 辛法王寺神衆院 還拜百神于闕庭 乙卯西女真亡聞等來朝。(世家卷第十二睿宗一)

元年十一月己巳 豕星見 癸未月入輿鬼 丁亥流星出危入壘壁羽林大如椀。(志卷第一天文一)

睿宗五年五月癸卯 設消災道場於會慶殿五日。己酉彗星入紫微 庚戌王朝王太后于延德宮 辛亥御乾德殿視朝 宰相崔弘嗣金景庸與臺諫上疏 論尹瓘吳延寵等敗軍之罪 王不聽便入內 弘嗣等詣重光殿東紫門固請至晡 竟不允。宰相諫官歸第不出省中一空 王召平章事李頤中書舍人李德羽等令直省中 弘嗣等累旬不出 王遣近臣敦諭起之。諫官亦出視事 時人譏之。乙卯彗星見凡九日 丁巳夜盜二十人入都無庫 殺庫直郎將同正金可崇 窃取銀物。(世宗十三睿宗二)

五年五月己酉 彗星入紫微 乙卯夜二更 彗星發天將軍閣道星間 至晚乃滅 丁巳夜 彗星發路策星(志卷第一天文一)²⁴⁾

위의引例에서와 같이 天文, 天體의 變恠는 곧 地上 人間世界에 對應되는 變故를 갖고 온 것으로 記錄되어 있다. 特히 彗星의 出現은 兵革과 關係되는 것으로 觀念되었으며, 때문에 攪亂이 目的으로 燭火로 燐을 妖星을 偽作키도 하였다.

- 東都有星浮山 一峯秀出 新羅時有人 於山頂舉炬 人以為妖星現(大東韻玉八)
- 新羅時有人 謂求官 使其子縛高炬 夜登山頂舉之。京城人以為妖星見。王憂懼 募人禳之。其父將應命。日官奏 此非大怪 但一家子死 爲哭之兆。是夜其子果爲虎所害(勝覽, 大東韻玉九)
- 哈丹兄弟九龍淵上。靜州所長金裕幹欲以計逐之。詐言某夜殲爾類。至其夜 山上設炬火以示之。哈丹等以為信然。遂渡江而逃。(勝覽, 大東韻玉九)

天象, 天體에 變恠가 생기면, 地上 人間界에도 對應되는 變故가 豫想되므로 既存狀態나 秩序의 破壞를 막기 위하여 그 變化를 主宰하는 對象의 神에게 祭를 올렸던 것이다. 마찬가지로, 妖星 곧 彗星이 나타나면, 將次 災殃을 豫示하는 兆朕으로 看做하여 祿災招福기 위한 儀式 곧 祭儀를 베풀었던 것이다.

24) 高麗史.

《彗星歌》歌話中 ‘時天師作歌歌之’는 그 祭儀의 一部를 말해 주는 것 이며, ‘星恆即滅’은 ‘禳災’를, ‘日本兵還國 反成福慶’은 ‘招福’을 말해 주는 祭儀의 結果라 하겠다.

이 記錄에도 明文化된 것이 없지만, 融天師를 司祭로 한 國家主管의 星祭를 생각할 수 있고, 그 結果가 너무나 뚜렷이 나타났기에 一然은 이 글을 ‘感通’條에 編次해 넣은 것 같다.

4. 天 師

(1) 日 官

- 第三十一神文大王諱政明金氏 開輝元年辛巳七月七日卽位。爲聖先文武大王創感恩寺於東海邊。明年壬午五月朔。海官波珍喰朴夙清奏曰 東海中有小山浮來向感恩寺隨波往來。王異之 命日官金春質占之。曰。聖考今爲海龍 領護三韓。抑又金公庾信乃三十三天之一子 今降爲大臣。二聖同德欲出守城之寶。若陛下行幸海邊 必得無價大寶。²⁵⁾
- 景德王十九年庚子四月朔 二日並現 汗旬不滅。日官奏。請綠僧 散華功德則可贖²⁶⁾
- 第四十九憲康大王之代 自京師至於海內 比屋連牆 無一草屋。笙歌不絕道路。風雨調於四時。於是 大王遊開雲浦。王將還駕。晝歇於汀邊。忍雲霧冥晦。迷失道路。恠問左右。日官奏云。此東海龍所變也 宜行勝事以解之。²⁷⁾
- 各有部司 分掌家務 內宮有前內部。穀內部。內掠部。……外官有司軍部。司徒部。日官(官)部。市部。……²⁸⁾
- 新羅初置天文博士。聖德王改爲司天博士[史]。麗制置司天臺 掌候天文[百官志]²⁹⁾
- 王太祖始置太卜監 使掌天文曆數測候等事 有卜博士卜正等官[百官志]³⁰⁾

天象、天體의 異變이 人間에게 重要한 意味를 가졌기에 王의 側近에는 항상 日官(天文博士; 司天博士; 太卜監)이 따르며, 그들은 天文을 살피고 異常이 있을 때는 그것을 占쳐서 地上 人間界의 變恆를 禮除토록 奏達했다. <有彗星犯心大星>을 發見한 것은 日官이었을 것이다.

日官의 奏請에 依하여 王은 항상 禮災招福키 위한 祭儀를 배풀었다.

25) 「三國遺事」卷第二 紀異第二 萬波息宿。

26) 「三國遺事」卷第五, 感通第七, 月明兜率歌。

27) 「三國遺事」卷第二, 紀異第二, 處容郎望海寺。

28) 「北史」百濟傳。

29) 「大東韻玉」五。

30) 「大東韻玉」十八。

(2) 天 師

祭儀에서는儀式을主宰할司祭가必要했다. 初期의國家的規模의祭儀에서는그司祭者가, 祭政一致라는觀點에서王이었을것이다.³¹⁾ 그러나後代에내려와서는祭政分離로司祭職이別途로마련되었을것이고, 特히新羅에서는佛教가輸入되어護國·祈禱佛教로서特色을갖게되어大部分의國家次元의祭儀, 王室側近의祭儀에서는그司祭者가僧侶였던것같다.³²⁾

그러나在來의in祭儀에서는外來의in것의影響을받기는했을지나그들대로의持續的인面을갖고信仰의根底를이루고있었을것이다. 이러한在來의in信仰을巫教라한다면, 이巫教의構造의特徵은첫째로俗된것에서죽고기록한것을다루는존재로이니시에이션의체험이고, 둘째는歌舞에의한神人融合의엑스타시에서이니시에이션의체험을반복한다는것이요, 세째는엑스타시속에서神과인간이직접교제하여禍福을조절한다는것이었다.³³⁾

이런面에서花郎이지녔던歌舞的機能은重要한것이어서花郎制度가廢止된高麗時代에도그들은四仙樂部를形成하고歌舞者로서八關會에참여하였다. 古代人們에게歌舞는단순한遊戲나娛樂의行爲가아닌, 宗教的意味를가진行爲였다. 이것은古代의祭天儀禮였던迎鼓東盟, 舞天, 蘇塗祭등이노래와춤으로써진행되었다는사실에서단적으로설명되고있다. 花郎들의歌舞는바로그려한宗教的傳統에屬하는것이라하겠다.³⁴⁾

이러한歌舞儀禮를主管한融天師는單純한僧侶는아닐것이다.³⁵⁾
 ○(貞平大王)卽位元年有天師降於殿庭, 謂王曰上皇命我傳鵠玉帶. 王親奉跪受然後其師上天. 凡郊廟大祀皆服之.³⁶⁾
 ○(景德)王一日詔表訓大德曰, 賤無祐, 不獲其嗣願大德請於上帝有之. 訓上告於天帝……訓欲下時, 帝又召曰, 天與人不可亂今師往來如隣里漏洩天機今後宜更

31) 接三國史云, 新羅稱王曰居西干, 辰言王也, 或云, 呼貴人之稱, 或曰, 次次雄或作慈充。金大問云, 次次雄方言謂巫也, 世人以巫事鬼神尚祭祀故畏敬之遂稱尊長者爲慈充…(三國遺事 卷第一, 紀異第二, 第二南解王)

32) 緣僧이라는말에서짐작할수있다.

33) 柳東植, 「韓國巫教의歷史와構造」延大出版部, p. 86

34) 柳東植, 上揭書, pp. 88~89

35) 月明師가분명僧侶지만日日往戒饋키위한祭를主管했다. 이런祭는佛教의儀式만은아닐것이다. 자기스스로도國仙之道라하였다.

36) 「三國遺事」卷第一, 紀異第二, 天賜玉帶.

不通…….³⁷⁾

- 融天下大師作彗星歌，鄉歌之傳始比。³⁸⁾

위의 引例에서 볼 때 ‘天師’란 天上과 地上을 往來할 수 있는, 神의 뜻을 人間에게 그리고 人間의 所望을 天上神에게 傳達할 수 있는 巫의 인 存在를 말하는 人間이라 하겠으며, 그런 意味에서 「東史年表」의 ‘融天下之大師’라든지 「三國遺事」의 ‘融天師’는 理解될 수 있다. 그래서 ‘時天師作歌歌之’란 療災기 위한 祭儀에서 人間의 말과 神의 말을 天上과 人間에게 傳達한 主祭者の 行爲를 表現한 것으로 知悉될 수 있다.

이 行爲는 亦是 ‘星祭’의 儀式에서 行해졌을 것이다.

5. 倭侵과 鎮委

(1) 倭侵

- 始祖八年 倭人行兵 欲犯邊，聞始祖有神德乃還。
- 脫解尼師今三年夏五月 與倭國結好交聘。
- 祇摩尼師令十年夏四月 倭人侵東邊。
- 奈解尼師今十三年夏四月 倭人犯境 遣伊伐食利音將兵拒之。
- 助貢尼師今三年四月 倭人猝至圍金城 王親出戰 賊潰走 遣輕騎追擊之 殺獲一千餘級。四年夏五月 倭兵寇東邊。秋七月 伊伐于老與倭人戰沙道 乘風縱火焚舟 賊赴水死盡。
- 沾解尼師今三年夏四月 倭人殺舒弗邯于老。
- 儒禮尼師今四年夏四月 倭人襲一禮部 縱火燒之。虜人一千而去。九年夏六月 倭兵攻陷沙道城 命一吉浪大谷領兵救完之。十一年夏 倭兵來攻長峯城 不克。
- 詰解尼師今三十七年 倭兵猝至風島 抄掠邊戶 又進圍金城急攻。王欲出兵相戰。伊伐食康世曰：賊遠至 其鋒不可當。不若緩之 待其師老。王然之 閉門不出。賊食盡將退。命康世率勁騎追擊 走之。
- 奈勿尼師今九年夏四月 倭兵大至。王聞之 恐不可敵 造草偶人數百 衣衣持兵 列立吐含山下 伏勇士一千於斧峴東原。倭人恃衆直進。伏發擊其不意。倭人大敗走。追擊殺之幾盡。三十八年夏五月 倭人來圍金城五日不解。將士皆請出戰。王曰 今賊棄守深入 在於死地 鋒不可當 乃閉城門 賊無功而退。王先遣勇騎二百 避其歸路 又遣步卒一千 追於獨山 夾擊大敗之。殺獲甚衆。
- 實聖尼師今四年夏四月 倭兵來攻明活城 不克而歸。王率騎兵 要之獨山之南 再戰破之。殺獲三百餘級。六年春三月 倭人侵東邊。夏六月 又侵南邊 奪掠一百人。

37) 「三國遺事」卷第二 紀異第二 景德王忠談師表訓大德。

38) 魚允迪, 東史年表。

七年春二月 王聞倭人於對馬島置營貯以兵革資糧以謀襲我。我欲先其未發 捷精兵擊破兵儲……(不行)。十四年秋八月 與倭人戰於風島克之。

- 韓昭惠王立二十五年夏四月 倭兵來侵東邊圍明活城，無功而退。二十四年 倭人侵南邊 掠取生口而去。夏六月 又侵東邊。二十八年夏四月 倭兵圍金城十日 糧盡乃歸。
- 慈悲麻立二年夏四月 倭人兵船百餘艘襲東邊 進圍月城 四面矢石雨。王城守。賊將退出兵擊敗之。追北至海口 賊溺死者過半。五年夏五月 倭人襲破活開城 虜人一千而去。六年春二月 倭人侵軟良城 不克而去。王命伐智德智領兵伏候於路要擊大敗之。十九年夏六月 倭人侵東邊王命將軍德智擊敗之。殺虜二百餘人。二十年夏五月 倭人舉兵 五道來侵 竟無功而還。
- 昭知麻立四年五月 倭人侵邊。八年夏四月 倭人犯邊。十九年夏四月 倭人犯邊。二十二年春三月 倭人攻陷長峯鎮。³⁹⁾

倭寇는 記錄上, 新羅初期부터 新羅의 邊境 特히 ‘東邊’을, 甚할 때는 ‘金城’까지 侵入해 擄掠해 갔다. 이러한 行爲는 李朝에까지도 계속되었다. 그들의 侵掠規模는 작게는 ‘犯邊’에서 크게는 ‘舉兵將船百餘艘’에 ‘軍士萬餘名’에까지 이르기도 했으며, 그들의 記錄을 通해 볼 때 侵入의 目的이 擄掠만이 아니고 隣國을 救濟한다는 名分까지도 내걸었던 것 같다.⁴⁰⁾ 그리고 그들이 新羅에 到着한 時期는 主로 夏四月을 前後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倭寇의 擄掠은 新羅로서는 大憂患이 아닐 수 없었다. 그래서 여러 가지 方法과 手段을 講究하여 그들을 警戒했던 것이다.

(2) 鎮 倭

① 結 好

- 脫解尼師今三年夏五月 與倭國結好交聘。
- 基臨尼師今三年春正月 與倭國交聘。
- 該解尼師今三年春三月 倭國王遣使爲子求婚。以阿漁急利女送之。
- 實聖尼師今元年三月 與倭國通好 以奈勿王子末斯欽爲質。⁴¹⁾

② 防 備

39) 「三國史記」‘新羅本紀’에서 摘出, 以下略替。

40) 八年春二月 新羅與任那相攻 天皇欲救任那 是歲命境部臣爲大將軍 穩積臣爲副將軍(並鬪名)則將萬餘衆 爲任那擊新羅 於是直指新羅 以泛海往之 乃到于新羅 攻五城而拔……「日本書紀」卷 22. 推古天皇。

41) 「三國史記」新羅本紀, 以下略替。

- 慈悲麻立干六年 王以倭人屢侵疆場 緣邊築二城.
- 昭知麻立干十五年秋七月 置臨海長嶺二鎮 以備倭賊.⁴²⁾
- 孝成王開元十年壬戌(開元十年壬戌則非孝成王代乃聖德王二十一年)十月始築開門於毛火郡. 今毛火村屬慶州東南境 乃防日本寒寇也.⁴³⁾
- 臨開郡在東都 新羅聖德王築城 遮日本賊路 因以臨開稱之 至今石城遺址尚在 人謂之 新羅時開門[勝覽]⁴⁴⁾

③ 先擊

- 儒禮王謂群臣曰 倭人屢犯我城邑 百姓不得安居 吾欲浮海擊之如何 弘權對曰 我軍不習水戰 若冒險遠征 恐有不測之危 王從之 [羅史]⁴⁵⁾
- 儒禮尼師今十二年春 王謂臣下曰 倭人屢犯我城邑 百姓不得安居 吾懲與百濟謀一時浮海入擊其國如何 舒弗郎弘權對曰 吾人不習水戰 冒險遠征 恐有不測之危 况百濟多詐 常有吞噬我國之心 亦悉難與同謀 王曰 善.⁴⁶⁾

④ 以佛制壓

- 新羅第二十七善德王卽位五年貞觀十年丙申 慈藏法師西學 ……經由中國太和池邊 忽有神人出問 胡爲至此 藏答曰 求菩提故 神人禮拜 又問 汝國有何留難 藏曰 我國北連靺鞨 南接倭人 屢濟二國迭犯封陲陵冠縱橫 是爲民梗 ……神曰 皇龍寺護法龍 是吾長子 受梵王之命 來護是寺 歸本國 成九層塔於寺中 隣國降伏 九韓來貢 王祚永安矣 建塔之後 設八關會 救罪人 則外賊不能爲害 更爲我於京畿南岸置一精廬 共資予福 予亦報之德矣 言已遂奉玉而獻之忽隱不現 ……
- 又海東名賢安弘撰東都成立記云 新羅第二十七代 女王爲主 雖有道無威 九韓侵勞若龍宮南皇龍寺建九層塔 則隣國之災可鎮
- 第一層日本 第二層中華 第三層吳越 第四層托羅 第五層鷺遊 第六層靺鞨 第七層丹國 第八層女狄 第九層穢貊⁴⁷⁾

⑤ 以神護國

- 神母(仙桃山聖母)久據茲山 鎮祐邦國 靈界甚多 有國以來 常爲三祀之一 秩在群望之上⁴⁸⁾

42)「三國史記」新羅本紀。

43)「三國遺事」卷第二 孝成王。

44)「大東韻玉」卷四。

45)「大東韻玉」卷十六。

46)「三國史記」新羅本紀。

47)「三國遺事」卷第三 塔像第四 皇龍寺九層塔。

48)「三國遺事」卷第五 感通第七 仙桃山聖母隨喜佛事。

- (脫解王)在位二十三年 建初四年己卯崩。葬疏川丘中。後神詔，慎埋葬我骨。
其軀體周三尺二寸，身骨長九尺七寸，齒濕如一 骨節皆連瑣。所謂天下無敵力士之骨，碎為塑像。安闕內。神又報云，我骨置於東岳，故令安之。(云崩後二十一年庚辰三月十五日辛酉夜見夢於太宗有老人貌甚威猛曰我是脫解也)⁴⁹⁾
拔我骨於疏川丘 塑像安於吐含山 王從其言 故至今國祀不絕 即東岳神也云⁵⁰⁾
 - 大王御國二十一年 以永隆二年辛巳崩。遺詔葬於東海中大巖上。王平時常謂智法師曰，朕身後願為護國大龍 崇奉佛法 守護邦家。⁵¹⁾
 - 第三十一年神文大王……為聖考文武大王 創感恩寺於東海邊(寺中記云文武王欲鎮倭兵始創此寺未畢而崩為海龍 其子神文立開耀元年畢排金堂砌下東向開一穴乃龍之入寺 旋繞之備蓋造詔之藏骨處名大王岩 寺名感恩寺 後見龍現處名利見臺)
- 明年壬午五月朔 海官波珍喰朴夙清奏曰，東海中有小山 浮來向感恩寺 隨波往來 王異之。命日官金春質占之。曰，聖考今為海龍 鎮護三韓 抑又金公庾信乃三十三天之一子 今降為大臣 二聖同德 欲出守城之寶 若陛下行幸海邊 必得無價大寶。⁵²⁾

倭寇의 侵入은 生民과 財物을 捕掠하기 위한 것이기에, 크든 적든, 東海邊이나 金城까지의 頻繁한 侵入은 國家로서는 무엇보다도 큰 大患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新羅는 結好交聘이나 通婚으로 그들을 달래기도 했고, 그들의 侵入을 막기 위한 防備를 튼튼히 하기도 했으며, 때로는 防備에 끝날 것이 아니라, 그들이 侵入하기 前에 先擊할 것을 計劃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方法은 一時의in 것이기에 永久히 倭寇를 制壓하기 위한 方法으로 佛寺를 創建하고 佛塔을 構築하고 佛事를 배풀어 佛力의 加護를 祈願함과 同時に 先王의 威德을 빌어 그들의 힘(神力)이 邦國을 倭賊으로부터 保護해 주기를 빌었다.

이런 事實은 倭寇가 新羅에 있어서 얼마나 귀찮고 褒患스런 存在인가를 말해 줌과 同時に, 그들을 制御하는 일이 治者的 莫重한 負擔이었다는 것도 말해 준다.

6. 附帶歌話의 意味

위와 같이 附帶歌話를 讀解할 때, 이 記錄을 우리는 歷史的 事實로

49)「三國遺事」卷第一，紀異第二，第四脫解王。

50)「三國遺事」卷第二，紀異第二，文虎王法敏。

51)「三國遺事」卷第二，紀異第二，萬波息笛。

看取할 수 있다. 卽 倭寇의 侵掠이 大體로 夏四月을 前後해서 있었기에 三花之徒가 ‘欲遊楓岳’한 것은 倭寇의 侵入을 撃退한 後(우리側의 記錄에는 真平王代 倭寇의 侵入事實이 없으나, 「日本書記」推古天皇 31年 (A.D 623)의 天文誌에 萬名도 넘는 日本兵이 新羅에 侵入했던 事實이 記錄되어 있다.) 平和를 되찾았기에 花郎修練의 한 樣式인 〈遊娛山水〉를 위해 가을에(楓岳은 金剛山의 가을의 名稱이다.) 楓岳으로 떠날 計劃을 했던 것이다. 그런데 日官이 天文을 살펴보니 彗星이 心大星을 犯하고 있었다. 占을 쳐보니 邊國 日本兵들이 쳐들어온 徵兆였다. 그러나, 日本兵은 이미 이 해에 한 차례 侵入해 왔다가 擊退를 當하였고, 그들의 侵入이 大體로 夏四月을 前後해 있어 그 時期가 아니기에 郎徒들은 疑心했으나, 有事時를 對備하는 것이 그들의 本務기에 그들의 楓岳行을 그만 물려고 했던 것이다.

日官의 占卦가 凶兆기에 禮災招福의 祭儀(星祭)를 베풀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그 祭儀를 主宰한 天師가 儀式의 한 過程으로 ‘作歌歌之’했더니 星佐 卽 彗星이 곧 없어지고(彗星은 오래면 20日 짧으면 곧 없어질 수도 있다.) 日本兵도 물러 갔다. 彗星의 出現은 日本兵의 侵入을豫報한 것이다. 그러나 이 日本兵은 한 차례 侵入・擊退 당했을 때의 未歸의 敗殘兵일지도 모른다. 最後의 發惡을 敢行하려 했으나 郎徒들의 對備에 물려가지 않을 수 없었음을 말해 준다 하겠다.

이리하여 盜賊들은 곧 敗走하고 말아서 오히려 ‘彗星犯心大星’한 徵兆에 反해서 盜賊이 물려가는 福慶을 이루었던 것이다.

倭賊의 侵掠을 疑懼했다가 平定을 回復해 王은 기뻐 郎徒들을 楓岳에 보냈던 것이다.(이런 楓岳行은 四仙의 이야기에서도 찾을 수 있다)

星佐 卽 彗星의 消滅을 祈禳하는 儀式의 重要過程인 ‘作歌歌之’의 內容이 곧 ‘彗星歌’인 것이다. 이것은 一般祭式의 祝과 같은 性格의 것이다.

III. 彗星歌의 檢討

1. 諸家의 읽음.

舊理東戶汎叱乾達婆矣遊鳥隱城叱盼良望良吉。

비로 東八 물乞八 乾達婆의 노온 잣을 난 바라고⁵²⁾

52) 小倉進平, 「鄉歌及吏讀研究」

비 시스겠고 乾達婆의 놀은 것흘란 ㅂ라고⁵³⁾
 구술느ㅅ 乾達婆이 노론 것흘란 ㅂ라고⁵⁴⁾
 멀이첫뭇又 乾達婆이 혼들 城을 바라고⁵⁵⁾
 나리셀물간 깐랄라이 놀은 것깔란 바라고⁵⁶⁾
 비리센풀又 乾達婆의 놀은 것흘아 바라고⁵⁷⁾
 베 누리 셜풀又 乾達婆이 노론 것하 ㅂ라고⁵⁸⁾

倭理叱軍置來叱多烽燒邪隱邊也蔽耶。

예내ㅅ軍도 왓다(고) 烽煞은 ㅋ애고자.
 예ㅅ 軍두 웃다 燐술안 ㅋ이슈라.
 예ㅅ 둘두 왓다 烽술안 ㅋ에드루.
 채마릿(倭)軍도 왓다 수술온 ㅋ잇우타.
 야마린 군도 웬다 풍사란 갈애고지라.
 옛 군두 웃다 烽술안 ㅋ여슈라.
 여릿 軍도 웃다 烽스란 모히야슈라.

三花矣岳音見腸烏尸聞古月置八切爾數於將來尸波衣。
 三花의 오름 보샤을 듣고 둘도 발씨 쉴 바에
 三花의 오름 보샤을 듣고 둘두 ㅂ질이 허렬바에
 三花의 드리 보샤을 듣고 둘두 ㅂ즈리 셔울바에
 세곧이 오로 보소을 듣고 둘도 불굿으 잣아웃바인
 삼화이 읊음 보샤을 듣고 떨도 바즈리 젖을 바이
 三花의 오름 보샤을 듣고 둘두 ㅂ줄이 혀어울 바의
 三花의 오름 보시을 듣고 둘두 바치 혀바돌 바의

道尸掃尸星利望良古彗星也白反也人是有叱多
 길을 뿐 별을 바라고 彗星(이)라 숨월 사롭이 있다.
 길뿔별 ㅂ라고 彗星여 술분여 사람이 있다.
 길뿔 뼈리 ㅂ르고 彗星여 술분여 사르미 있다.
 길슬 별 ㅂ라고 살별여 술온이 있다.
 길뿔 불이 ㅂ라고 끄성이야 살바란 사람 같다.

53) 梁柱東, 「朝鮮古歌研究」

54) 池憲英, 「鄉歌·麗謡新釋」

55) 李鐸, 「鄉歌新解讀」 한글 114호.

56) 金善琪, 「향가의 새로운 풀이」 現代文學 145호.

57) 金俊榮, 「鄉歌詳解」

58) 徐在克, 「新羅鄉歌의 語彙研究」

길뜰 뼈리 보라고 彗星여 솔분여 사름이 있다.
길뜰 뼈리 보라고 彗星이야 솔분 너니 있다.

後句達阿羅浮去伊叱等邪比也友物北所音北彗化只有叱故.
흡(이)여 갖더라 이에 맞갖되 밤스 비질악(이) 잇고
아오들아래 뼈갯더라 이어우 뜻슴彗스기 이실꼬
아으드루운 뼈겟드라 이에 벌들스소리스 솔스아 잇고
아라 들아 불아 잇드라 이불들 뜻슴 살아 잇드?
단아라이 편걸따라 이야 단문 다희즛 셀끼 일고.
아야 달아라 써가잇드라 이여우 뜻슴 췄잇고
아오 달아라 뼈가 잇드라 이야 벌률 배슴스 빛즈락 잇고

2. 作品의 檢討

- A. 菩理 東戶 汀叱
- B. 乾達婆矣 遊烏隱 城叱勝良 望良吉.
 {倭理叱軍置 來叱多 烽燒邪隱邊 也蔽耶.
- C. 三花矣 岳音 見賜烏戶 聞古,
- D. 造戶 捧戶 星利 望良吉,
 {彗星也 白反也 人是 有叱多.
- E. (後句)達阿羅 浮去伊叱等邪.
 此也友 物北所音 彗叱只 有叱故.

① 本歌는 그 意味單位로 봐서, (A+B), (C+D), (E)의 三段落으로 구분되어 볼 수 있다. 文章의 構成으로 봐도 그렇다. (A+B); (C+D)는 對句를 形成하고 있다. (E)는 後句로 結詞를 이룬다.

② A는 副詞語로서 B의 主된 叙述語(邊)也蔽耶)의 時·空的인 限定이 된다. B의 前行과 後行은 單純한 連結語尾로 이어지나 實際는 因果關係를 나타내 준다.

B의 前·後行에서 〈乾達婆矣 遊烏隱〉과 〈倭理叱軍置 來叱多〉는 對應關係가 成立된다 하겠다. 〈乾達婆〉는 〈倭軍〉으로 보았다는 말이다. 〈乾達婆〉는 ‘天樂神’으로 解한다면, 그것을 倭軍으로 보고 烽火를 울린 것은 잘 뜻이다. 이것은 真·僞의 對應이다. 여기서 人間의 愚昧를 나무랐다. 人間의 愚昧를 나무라면서 그 愚昧가 事實이기를 바랐다. 逆으로 보면 〈倭軍〉은 〈乾達婆〉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判斷 즉 〈乾達婆〉는 倭

軍으로 본 判斷을 過去의 事實로 돌리고, 그것은 가장 念慮되는 東海邊에서의 過去之事로 現在는 그런 念慮조차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함이라 하겠다.

③ C도 前·後行이 相關關係를 가져 因果의 文脈을 成立시키나, 그全體는 <波衣>에 依하여 D文의 副詞語가 된다. <三花矣 岳音 見賜烏尸>에 대한 ‘달’의 祝福이요 讚美라 할 수 있으며, 花郎徒의 ‘遊娛山水’가 平和時의 修練이라면, 이는 平和의 表象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日·月·星辰이란 天上의 序列에 ‘달’이 優位라면(달은 玉皇帝로觀念된다.), <月置 八切爾 數於將來尸 波衣>는 D의 彗星을 否定하는 意味도 內包한다.

④ D는 B와 完全한 對句를 形成한다.

- | | |
|---------------------------|--|
| (B) 乾達婆矣 遊烏隱 城叱盼良 望良古, | |
| (D) 道尸 掃尸 星利 望良古, | |
| (B) 倭理叱軍署 來叱多 烽燒邪隱 邊 也蔽耶. | |
| (D) 彗星 也 白反也 人是 有叱多. | |

B에서 같이, <道尸 掃尸 星>을 ‘彗星’이라 말한 사람이 있다. 그런 데 이것은 잘못이다. B에서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나, D에서는 그 ‘잘못’을 犯한 것이 人間으로 明示되었다.勿論 ‘彗星’을 ‘掃星’이라고 도 하고, 그 모양을 ‘掃彗’라고도 한다. 그렇다면 <道尸 掃尸 星>을 <彗星’이라 말한데 잘못은 없다. 그러나 C와 連結되어 볼 때, <月置 八切爾 數於將來尸 波衣> 어찌 <彗星>이 있을 수 있는가. 그것을 마땅히 <三花矣 岳音 見賜烏尸>‘길을 쓸어 줄 뿐’임에 틀림없다. D에서도 B와 같이, 아니 그보다 더 強力히 ‘彗星’이 否定된다. ‘倭軍’이 아닌 <乾達婆>임에야 ‘彗星’은 더욱 나타날 리 없다.

B가 過去의 事實을 말한 것이라면, D는 現在의 事實임을 말해 준다. 過去에 <乾達婆>를 ‘倭軍’이라 보았듯이 現在는 <道尸 掫尸 星>을 ‘彗星’이라 사람들은 잘못 보았다. 事實은 眞을 僞라 本으로 現象의인 事實을 否定한 것이다.

‘彗星’은 光芒이 긴 것으로 天神의 兵器(劍)로 觀念되어 兵革을 象徵하는 것으로서, 倭軍의 侵鹵에 依해 B와 D가 連結된 것 같다.

⑤ E는 結詞로 祈願成就의 叙述이다. 앞에서는 事實을 判斷의 잘못(僞)으로 眞·僞를 逆으로 놓고 否定하여 天神의 意志를 人間에 따르게

說祝(세축)하였다던, E의 前行에서는 事實인 ‘彗星’의 出現을 이미 消滅된 過去의 事實로 둘려(達阿羅 浮去伊叱等邪) 後行에서는 現在나 未來에는 <彗叱只>가 全혀 없을 것이라는 것을 設疑法으로 強하게 斷定하고 있는 것이다. 祢禳의 效果는 이미 나타난 것이다.

3. 作品의 性格

우리는 現在도 우는 아기를 보고 “우리 아기 쳐해서 울지 않는다.”고 말해 아기를 울지 않게 달랜다. 이러한 言語表現은 過去로 거슬러 갈수록 人間社會에 強하게 作用했던 一種의 言靈信仰의 殘滓가 아닌가 생각된다. 우리는 現存의 災殃的인 事實을 否定함으로 바라는 바 現實을 獲得한다. 그런 現實을支配하고 있는 神이 存在한다고 觀念되었을 때, 이러한 祈願은 咎嚇나 呪가 아닌 달램(說祝이라 表現한다)에 依하여 成就된다. 祭儀에 있어서의 娛神行爲는 달램의 한 方法이었을 것이다. 모든 神을 人格神으로 看做할 때 人間關係의 言語表現은 神을 對象으로 할 때도 그대로 適用되었다고 본다. 祭儀에는 神에게 이르는 人間의 言이 있다. 이것은 祭文이나 祝文의 形式으로 持續해 왔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形式의 表現樣式에서도 祈願하는 바를 달램의 方法에 依하여 연 울려고 했다.

祭雨師文

惟神薄陰陽以啟氣 御雲龍而施德 合風雷則禾木盡偃 覆雨露則品彙蘇榮 國家聖君
繼作雨暘時 若時和歲豐 民受其賜 故惟僕奴竊據海島 狹伏或發 害虐人民 今上赫然斯怒 令臣徂征責望大過 爰薦 衆師直擣賊營 乃墮欃鬼覆高島巢 惟神乃靈 何不
掩陰雲 拂素霧 見朗天衢 乾燥后土 驚耀恒明 倏無燎衣曝蕪之患 尚饗

李唐(「東文選」卷第 110, 祭文)

后土祝

騰精於天 陞六星而垂象 受社于地 位五土以配神 爰邇震辰 敢修非貲覲枉 密扶之力 奄觀多稔之年。

金克己(同上 祝文)

風師祝

北斗迴春 方耜發生之節 南箕布氣 聲揚條達之風 淚率舞儀 車修祀典 庶不憊於五日 終有稔於三春。

金克己(同上)

위의 祭·祝文에서는 ‘달랩’을 通해 祈願한은 本歌와 같으나 그 表現이 相異하다. 即 本歌는 祈願의 結果를 叙述함으로 祈願을 代身하는, 神의 意志를 強壓한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것은 時代의 變遷을 달려 준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블 떼 本歌는 營壇作梵하여 부른 呪詞나, 三花郎의 功德을 稱頌하여 부른 노래이기보다는 佛教傳來以前부터 있어 왔던 在來的인 祭儀, 特히 周期의인 것이 아닌, 有災時에 行해질 수 있는 ‘星祭’ 時에 主祭者에 依해 神에게 바쳐진 誓祝의인 祈願으로 後代의 祭祝文과 같은 性格의 것이라 하겠다.

災殃의인 現實을 愚昧한 人間의 잘못된 認識(僞)이라 보고, 人間認識의 違이 事實(眞)이라 뜻으로 現實을 否定하는 表現을 使用하고 있으며 또 災殃의인 現實을 過去로 돌려, 現在와 未來에의 그런 事實의 出現을 否定하였다. 그 修辭로는 整然한 對句法이 使用되었음을 알겠다.

IV. 結

「三國遺事」‘彗星歌’條의 記錄은 史實의 記錄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三國의 角逐이 甚했기에 倭寇에 關한 記錄이 史書에 疏忽히 取扱된 것 같은데, 「遺事」의 本記錄에서 그 一端을 發見할 수 있다. 그것은 花郎과 關係되어 나타나며, 여기서 花郎의 戰士團으로서의 性格이 պ렷이 나타난다.

天上과 地上人間의 對應關係의 觀念에서 天象의 變恆는 곧 人間世界의 그것을 豫報해 주는 것으로 알고, 그들은 恒常天文을 觀測했으며, 變怪가 있을 때 地上에의 對應되는 그것을 祓禳하기 위하여 祭儀를 베풀었던 것이다. 本記錄에서는 星恆였기에 兵革을 막기 위한 星祭를 베풀었으며, 그것을 主祭한 者가 바로 ‘天師’였다. ‘天師’는 天上과 地上을 往來하며 兩者를 和合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진 巫의 存在로 觀念되었던 것이다.

이 ‘天師’가 人間을 代身하여 人間의 祈願을 神(星神)에게 傳達하여 神意를 人間의 뜻에 向하도록 한 것이 바로 ‘彗星歌’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在來의인 祈願形態로 咒嚇나 呪가 아닌 달랩(誱祝)의 方法을 適한 것이라 하겠다.

이의 表現樣式은 人間의 愚昧를 나무라 神意를 和悅케 하고, 事實에 對한 人間의 認識을 僞로 보고 그것을 否定함으로, 人間認識의 否定으로 人間의 期待로 神의 뜻이 向하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 修辭는 整然한 對句法을 使用하고 있으며 災殃의 事實을 過去로 祈願의 內容을 現在一未來로 表現하여 祢禳卦 結果를 設疑法으로 強調해서 叙述하고 있는 것이다.

本歌는 佛教的 色彩가 加味되기 前의 祭壇의 祈願·祝願歌로 理解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